

1998년 북한의 대남 경협 창구에 대하여

- 창구는 여전히 다원화 속에 있다 -

권오홍 / 長漢信息 대표

경협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불균형 현상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그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어찌보면 체제 안정, 대외 관계의 출구 확보, 대남 정책이란 세 마리 토끼몰이는 일정한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나 구성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들이 가진 비개방성, 은폐성 혹은 관리체계의 다중성에서 연유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대외에서 파악되는 인물들의 비중을 논하기에는 내부의 이른바 감춰진 힘(?), 즉 세력군들의 무게가 여전히 베일 속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테면 대외 경협의 창구에서도 공식·비공식의 구분 더하기 각 구분의 주체들 즉, 당·정·군이란 대분화 집단이 있고 나아가 포장된 민간 조직이 혼재하는가 하면, 이들은 각자 부여된 과제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난지 그들이 내부적으로 받은 과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 점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남북한의 경협인 것은 특수한

관계, 이를테면 아직도 我敵이란 군사적이고도 이념적인 영향의 존재에서 양측 모두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대남 경협이란 표현 속에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활동 조직의 딜레마가 있고, 이들이 상대하는 경협 속에서 한국은 경협 창구가 '기업'인 셈이므로 과제간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금강산 관광이란 물꼬를 두고도 한국 내에서조차 여러 이론들이 많은 점은 남북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과연 남북한만의 대화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에서 출발되는 측면도 섞여 있다. 주변 국가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채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독의 대화와 일의 진행에 어느 만큼의 무게가 실릴 수 있을런지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할 변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구 문제에 있어 한국의 기업과 북한의 당 전위 조직인 아태평화위원간의 불균형(unbalance)을 지적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도 하다. 우리는 이 현상에서 남북한 경협의 현주소를 찾는 것이며, 북한의 대외 활동 조직의 역할을 정의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무슨 일이든지 파트너십의 형성 구도에 주목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경제 협력이란 틀 속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내 대외 경험 세력의 다원화된 활동 상황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 經協이란 말보다는 '각 세력의 課業과 그 가운데 주어진 대외 활동의 범위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란 정의가 보다 타당성을 지닌다. 이 점에서 경제 협력은 단순하지 못하다. 일정 부분 또 다른 역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그들의 말마따나 '정치 대국'인 북한이 경제만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혹은 정치 과업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비판받을 어리석은 점이란 것이다.

이런 현상이 세력의 다원화 혹은 다중화를 초래한다. 대외 경험 창구의 다원화 속에 힘의 집중을 하는 방식이 바로 대남 경험의 원리이자 그들이 세우고 있는 이론인 셈이다. 과거 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명멸했던 조직과 인물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 과정에서 혹은 그 속의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나 외부의 현상으로 빚어진 바가 크다. 그러다보니 '인물'과 '조직'을 동시에 쳐다보아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차라리 인물이면 인물, 조직이면 조직으로 정의되면 간편한 것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남북한 경험은 최고위자들의 허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 현상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활동의 창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대외로 알려진 조직들의 일단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들간의 역학 관계를 짐작할 수는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직인 대외경제위원회(대경위)나 대외경제협력추진위(대경추)는 이성대·김정우의 활동이 없는 지금도 그 조직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경추의 경우, 나진·선봉이란 특수한 지역애의 문제를 집중으로 다루므로, 조직의 수장이었던 김정우의 외화 통장의 발견으로 인한 숙청 혹은 정치적 인 역학 관계로 인한 잠정적 구금 상황 혹은 총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변 지역과 북경 등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계속된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활동 무대가 대남 관계보다는 對중국 혹은 對일본 등이라는 제한적인 측면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들 또한 북경·대련 등지에서 쉽게 발견이 된다. 활동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금년 들어 다른 여타 조직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점과 나아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당 조직의 전면 부각 및 정무원 계열 조직들이 여러 차례의 변동이 불가피했던 점때문으로 파악된다.

작년 이후 한국 기업에 가장 잘 알려졌던 광명성경제연합회의 경우, 영문으로는 대외적으로 Association을 사용하는 일종의 창구 조직의 하나로 북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 광명성이 김정일을 의미하는 일종의 별호라고 생각할 때, 이 조직이 가진 역할의 범위는 매우 크게 보일 수 있으나 정작 북한 방문이나 기타의 활동까지 이들이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위 조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 기업과는 잦은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강산 개발의 와중에서 실제 금강산개발총회사가 전면에서 나서지 못함으로 인해 외부의 억측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이기도 한 박경윤은 최근에도 북경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모 가구 회사·언론사의 방북 등을 성사시키는 데 약간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북한 내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한 경향이 많다. 남북한 경협이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나 여러 측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역할이 축소된 측면에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현대의 금강산 개발 논의에 참가하지 못한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진다.

북한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중심으로 한 활

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경의 경우 참사급 인물들의 남북 경협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고, 중국 요녕성의 심양 지역 영사관을 중심으로는 동북의 기업군들과 인물들이 영사관의 인물들과도 꾸준한 활동들을 한다. 주목할 것은 상당수의 인물들(최근에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음)이 아직도 이들과의 관계를 빌미로 한 경협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나 실제 성사되거나 혹은 대외로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조용히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나, 그만큼 다수의 인물들이 '경제'보다는 기타의 목적에 휘말리는 예가 많다는 점이다.

군부와 관련된 제2경제위원회의 인물들은 실제 한국 기업들이 이들을 접촉하기는 난망한 부분이 많다. 이들 자체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하부 조직인 군부 계열의 무역 회사들이 있으므로 충분한 전면 활동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담당하는 경제 관련 업무 자체가 매우 민감한 군사적인 분야이므로 일반 기업(한국)의 접촉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의 활동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된다. 중국 지역에서는 북경을 중심으로 심지어 중국 남부 지역에서도 제2경제위원회가 관련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일반 기업 단위의 활동은 과거와 크게 달

라진 것이 없다. 조선봉화나 은하무역이니 혹은 룡라도, 청류무역, 옥류무역 등의 단위들은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고, 이들은 가급적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에 한하여 깊이있게 협업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과의 접촉을 한다. 워낙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이들과 접촉하다보니 이들간에는 어떤 기업은 안된다는 식의 대처 방식이 나름대로 굳어진 측면도 있음은 유의할 사항이다. 군부 산하의 기업 활동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이 접촉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와 같은 북한의 치안 부재 현상 속에서 군부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거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예도 볼 수 있다.

영광한 명칭의 단체들이 대외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민족경제연합체 등과 같이 이상한 연합체를 수식어로 달고 있으면서 대외에 이의 대표 형식임을 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석에서 자신들이 당의 전위 조직과 같이 김정일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혹은 파워 측면에서 다른 조직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검증되는 사례는 최근에 많지 않다. 일부 북한 내부의 조직 가운데 이와 같은 연합체란 명칭으로 해당 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조직들은 있지만, 이들이 대외적으로 대남 관계를 취급하

는 데 어느 정도의 과업 범위를 가졌는지는 뚜렷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

아태평화위는 요즘 가장 부각되는 조직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이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조국통일평화위원회란 당의 대남 관계 전위 조직이 민간의 형태를 띤 하나의 새로운 명칭을 끄집어낸 것이 이 조직이라고 보면, 쉽게는 북한의 정부 조직 자체이며 더 복잡하게는 한국측의 사안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는 변동성이 강한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김용순이란 인물은 작년 말부터 금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의 한 사람으로 대두되는 인물이다보니 그의 출현이 잦은 이 조직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은 대부분의 사안이 매우 민감한 정치·경제적 사안을 취급한다는 점을 기초로 하면 아무리 잘 포장되었다 해도 민간 조직일 수는 없다.

대외에서 움직이는 이들 조직들을 보고 있다면 과연 남북한 관계에서 진정한 창구는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어느 한 조직을 통일된 창구로 볼 수 없고 또한 전문적인 대남 관계를 위한 창구라고 이야기하는 쪽마저 실질적으로는 혼선되는 경향마저 있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보아온 것처럼 인물들의 교체는 꾸준하게 진행되므로 일시간 접촉했던 인물의 부재로 인하여 추진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이중의 업무 진행은 그들간의 역학 관계에 의하여 좌절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원화 세력으로 정의하는 것은 크게 부리가 아닐 것이다.

1998년: 보합의 역학 관계를 유지한다

작년 말부터 북한의 대내외적인 조직·인력의 개편 문제가 거론되어왔다. 예를 들면, 구세대가 정비되고 신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년 말에 가까운 현 시점에서 북한은 보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정우나 이성록 등의 인물들이 숙청 등으로 인해 업무의 전면에서 제외되긴 하였으나 그 뒤를 잇는 세대들이 뚜렷하게 전면에 부각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의 등장도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물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부각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혹은 일부의 인물 교체들만이 주목될 뿐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북한은 강력한 내부적인 조직의 개편이나 인물 교체를 시도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역학 관계나 혹은 기타 단기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기존의 인물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내부적인 불안감의 조성보다는 기존의 효율 혹은 틀을 그대로 끌고 가는 정책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한 경

협 혹은 대외 경험의 창구가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있는 것인가의 의문은 '아니다'는 답변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Who)의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Degree)의 일인지를 우선하여 따지는 구도가 중점으로 되는 현상이다. 관광이란 섹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분명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그들의 파트너를 내놓고 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북 접근에서 아직도 그 매듭을 짓고 있지 못한 현상들은 그만큼 그들 내부의 허가 등의 평가 방식이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축적된 접근이 없는 일차성의 접근으로 남북한 경험이 풀어질 수 없음은 내년에 또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란 비판적인 평가도 이런 현상에 기인한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급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한 해가 되고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란 커다란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인 결정이 남북한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분명하지만 經協이란 아주 작은 경제적인 교류에서 큰 물꼬에까지 이르는 정상적인 폭을 가져야 되는 점에서 보면, 분명 약간은 왜곡된 흐름 속에 늘 있는 것이 남북한임을 절감하게 한다. 북한의 대외 경험 창구는 이 점에서 보면 여전히 다원·다중화된 속에서 그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